



사이트 '라이브 사이언스 닷컴(LiveScience.com)' 이 10일 보도했다.

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과 세르게이 니즈코로도프 교수팀이 '공기·쓰레기 관리협회(Air & Waste Management Association)'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온 공기정화기는 공기 중 먼지를 전극 봉으로 끌어들이어 없애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오존을 발생시키고,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 오존은 다시 기존 오존과 결합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응축물을 형성한다고 발표했다.

대기 중 오존은 지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'스모그'로 불리는 실내 오존은 사람의 폐에 해를 주고 숨 가쁨과 인후염을 야기하며 천식을 악화할 수 있다. 니즈코로도프 교수팀이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다수의 가정과 사무실, 차량 등을 상대로 시험한 결과 대부분에서 실내 먼지 농도가 캘리포니아의 허용 기준치인 90ppb를 넘어섰으며, 일부에서는 2단계 스모그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350ppb까지 치솟았다고 한다.

캘리포니아에서 2단계 스모그 경보가 발령된 것은 1988년 이후 단, 한 차례도 없었다. 캘리포니아 의회는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, 연방정부와 주 환경청(EPA)은 공기정화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민들에 촉구하고 있다.

니즈코로도프 교수는 "실내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 허용 기준을 넘는 오존에 노출되기 쉽다."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.

〈연합뉴스 2006. 5. 10〉

### 암 진단 유용 '펫 검사' 등 건보적용 확대

다음달부터 암 진단에 유용한 펫(PET·양전자단층영상) 검사를 비롯해 복강경 등 내시경 치료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. 펫 검사는 환자가 내야 할 돈의 80% 이상, 내시경 치료는 70~90% 정도 부담이 준다.

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



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. 펫 검사는 암의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에 유용해 그동안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됐지만 검사비가 한 번 촬영에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정도로 환자 부담이 컸다.

보험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 간암은 암 치료 뒤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검사한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준다. 복강경,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 재료도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된다. 그동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~90% 정도가 줄어 10만~20만원만 내면 된다. 손영래 보험급여팀 사무관은 "펫 검사에 630억원 가량, 내시경 재료에 430억 원의 건보재정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."라고 말했다. ㉮

〈한겨레신문 2006. 5. 12〉